

“6살도 수업 적응 힘든데, 5살은 관리 안될 것” 잇단 반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반응 보니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5세로 앞당기는 학제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광주에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2025년부터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을 추진한다. 1949년 ‘교육법’ 제정 이후 76년 만에 이뤄지는 학제 개편으로, 취학 연령을 앞당겨 영·유아 단계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대상을 확대하고 졸업 시점도 앞당겨 보다 빨리 사회에 진출하도록 돕는다는 것이 추진 배경이다.

박순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교육부장관은 지난 29일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학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도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광주 학부모뿐 아니라 초·중·고 교사 단체 등이 학제 개편안에 대한 뜨거운 찬반 논쟁을 벌이고 있

학부모·교육계, 학제개편안 잇단 비판…광주 맘카페 “날벼락 같은 일” 유아들 인지·정서 발달 특성상 부적절 지적 등 찬성보다 반대 압도적 교육단체들 오늘 대통령실 앞 집회…사립유치원들 “생존권 박탈” 규탄

는데, 찬성보다는 반대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광주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맘카페에서는 “날벼락 같은 일이다”며 거센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한 학부모는 계시글을 통해 “아이들은 한 두달 만으로도 성장 차이가 크다. 우리 아이는 11월생이라 지금도 1, 2월생들과 차이가 많이 난다”며 “발달 시기를 고려해 줘야 하는데, 어쩌란 건지 모르겠다”고 낄낄 웃었다.

또 “느린 아이들은 한글도 더 늦게 뱉 텐데, 수업을 미처 못 따라갈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그 중에는 “2019년생과 2020년생은 같은 학년으로 입학하

게 될 텐데, 나이가 달라 친구관계도 혼란스러울 것”이라며 “연년생 자매가 학교에서는 같은 학년으로 쌍둥이 자매가 돼 버린다”며 조소하는 이도 있었다.

일부는 “빠른 나이 입학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때도 흔한 일이었다. 대학 재수할 때 오히려 한살 빠르게 간 게 부럽기도 했다”며 찬성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교육단체들은 1일 반대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1일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학제 개편안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집회에는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사노

동조합연맹 등 20여개 단체가 참가할 예정이다.

범국민연대는 “만 5세 초등 조기취학은 유아들의 인지·정서발달 특성상 부적절하며, 입시경쟁과 사교육의 시기를 앞당기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으로 직장을 포기해야 하는 부모들이 많은 상황에서 만 5세 초등학교 조기취학 학제개편은 학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지역 일선 교사들도 회의적이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박모 교사는 “저학년일수록 1년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 개편안이 시행된다면 현재 6살에 맞춰 편성돼있는 1학년 교육과정부터 몽땅 뜯어 고쳐야 할 것”이라며 “지금 6살짜리 1학년생들도 수업 환경에 적응시키기 힘든데, 5살은 도저히 통제가 안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김모 교사도 “지금도 만 5세에 조기입학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6살 아이보다 가르치기가 훨씬 어렵다. 기본적인 생활 습

관을 만들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며 “조기 입학생들은 교사들도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체 학제를 개편하는 건 교사들에게도 큰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김도영 전국교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정책국장은 “5·6세는 하루하루 눈에 띄게 커 가는 시기다. 이번 개편안은 아동 발달 과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충분한 논의 없이 기습적으로 학제 개편안을 내놓으니, 학교도 학부모도 준비가 안 돼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유치원에서도 반발이 거세다. 유치원 주 교육 대상이 만 5세 아이인 만큼, 개편안은 유치원의 생존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이라 지적이 나온다.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는 “만 5세 유아는 전체 유치원 유아의 40~5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유치원의 주요 교육 대상”이라며 “강경 추진한다면 정권 초기의 영풍하고 다급한 발상에 그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싼값에 화장품 공급” 15억 가로챈 사기범

광주광산경찰, 40대 검거

수입 화장품과 건강식품을 싼값에 공급해준다는 소상공인들을 속여 15억원 상당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광산경찰은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검거해 조사중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6명의 소상공인으로부터 15억 원의 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 중 4명은 광주 지역 소상공인이고, 나머지 2명은 타 지역 소상공인으로 확인됐다.

A씨는 유통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자주 보는 인터넷 카페에 “화장품, 건강기능식품을 공급하는 사람인데 관심있는 사람은 연락을 달라”는 글을 게시해 피해자들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처음 2개월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대금으로 직접 물품을 구입해 정상적으로 물건을 공급해

주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일명 ‘돌려막기식’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초기에 1000~3000만원 상당의 거래를 했지만 물건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고, A씨는 이점을 이용해 이후 거래금액을 역대로 키운 뒤 “대금을 송금하면 수입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수입 화장품이 수입중에 통관에 걸려 잠시 지체되고 있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시간을 끌며 거짓말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말께 피해자 및 지인들과 연락을 끊고 잠적한 뒤 전국을 돌며 도피행각을 벌이다 대구에서 붙잡혔다.

동중 범죄로 처벌 이력이 있는 A씨는 경찰조사에서 “출소후 생활이 어려워져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제적 범행경위를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잠수교육 중 실종된 60대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

고흥에서 잠수교육을 받던 60대 다이버가 실종됐다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여수해양경찰은 지난 29일 오후 5시 40분께 고흥군 포두면 남성리 목섬 북서쪽 140m 지점에서 숨져 있는 A(62)씨를 발견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2시 50분께 고흥군 포두면 남성리 목섬 앞 약 50m 바다 위에서 잠수교육

중 실종됐다.

A씨는 당시 다른 교육생과 2인 1조로 슈트, 공기통 등을 착용한 상태로 입수해 잠수 수업중이었다. 수업 중 갑자기 A씨가 보이지 않게 되자 담당 교육강사 등이 1시간 가량 자체 수색을 하다 신고가 지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구조대를 급파해 민간 구조선 등과 함께 인근 해상을 수색하다 수중에서 A씨를 발견했지만 숨져있었다.

해경은 강사와 교육생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우리는 어린이 소방관” 어린이 직업체험 특별전 ‘키지아나 GO! 광주’ 행사가 31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 다목적홀에서 열렸다.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소방관 옷을 입고 구조 활동 체험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도심서 길 건너던 할머니, 택시에 치여 숨져

광주 도심에서 70대 할머니가 길을 건너다 택시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동부경찰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택시기사 A

(62)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30일 밤 9시 30분께 광주시 동구 중장로 5가 구성로에서 길을 건너던 B(여·7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길을 건너

던 곳은 횡단보도가 없었고, 중앙선을 건너 횡단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손님을 태우기 위해 도심을 지나가다 갑자기 도로에 뛰어든 B씨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택시기사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